

# 정의선, 글로벌 현장 종횡무진… 역대최대 판매실적 이어간다

〈현대차그룹 회장〉

정 회장, 중남미·유럽 등 생산 점검  
품질·현지화 등 브랜드 경쟁력 강조  
“고객의 기대 뛰어넘는 완성도 확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중남미와 유럽 등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 현장 점검에 나서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와 유럽 시장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거센 곳으로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을 방문해 차체 생산부터 의장 공정까지 양산 전 과정을 점검하고 초기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올 하반기 유럽 시장 출시를 앞둔 아이오닉3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치백 형태의 B세그먼트 전기차로, 유럽 전동화 시장 공략의 핵심 전략 차종이다.

이달 중순부터 튀르키예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순차 출시되며, 현대차는 내년 연간 4만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B세그먼트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전기차 비중도 빠르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대차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가동을 시작한 튀르키예 공장은 현대차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양산 30주년을 맞는다.

정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과 품질, 판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튀르키예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6만712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6.7% 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만163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 배터리시스템조립(BSA) 공장도 방문해 배터리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양산 초기부터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완성도를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 분야에서도 유럽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선 회장은 중남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지화’ 전략을 강조했다. 당시 정 회장은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와 파워트레인 현지화를 주문하며 “브라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위치한 현대차 브라질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시장의 도약을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브라질 전략 차종인 i20와 S UV 크레타의 생산 품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브라질은 현대차 글로벌 사업의 핵심 시장”이라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는 BYD 등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친환경차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소형 전기차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한편 휘발유-에탄올 혼합 연료 기반 하이브리드(FFV-HEV) 개발과 수소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아도

멕시코 공장의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 6억4900만달러를 투자하며 중남미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누에보레온주에 있는 기아 멕시코 공장 라인을 개조해 소형 전기 SUV ‘EV3’를 다음달 4일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브라질의 산업 환경 변화와 새로운 경쟁 국면을 맞아 여러 도전과 과제가 존재한다”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다음 단계의 성장과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전자부품 시장 호황… 韓 ‘선도’ 中 ‘추격’

삼성전기·LG이노텍 2분기 호실적  
中, MLCC 생산 확대… 시장 정조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전자부품 호황을 업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AI 서버와 전장용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 기업들은 범용 적층세라믹카패시터(MLCC)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첨단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MLCC와 반도체 기반 등 고부가 전자부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사이 중국 기업들도 범용 시장에서 확보한 자금을 앞세워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제품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이어 전자부품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대표 MLCC 업체인 삼환그룹은

지난 7월 홍콩 증시 상장으로 71억6000만 홍콩달러(약 1조3000억원)를 조달해 태국과 독일 신공장 건설에 나섰다. 풍화고과도 2020년부터 추진한 75억위안(약 1조6000억원) 규모 설비투자를 마무리하고 월 생산능력을 500억개까지 확대했다. 최근에는 AI 서버용 고부가 MLCC 생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우주항공용 전자부품 업체인 홍다전자 역시 AI 서버와 광통신용 MLCC 라인 증설을 추진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범용 MLCC의 절반가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약 25%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범용 시장을 기반으로 확보한 수익을 첨단 부품 투자에 재투자하면서 AI 전자부품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고용량 MLCC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공급계약(LTA)을 확대하고 있다. LG이노텍도 FC-BGA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베트남 생산거점 확대와 고객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빅테크들의 자체 AI칩 확대도 국내 업체에는 새로운 기회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AI 추론용 자체 칩 개발을 확대하면서 초대면적·고다층 FC-BGA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AI 반도체가 대형화될수록 기판의 기술 난도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사 인증과 생산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MLCC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갈수록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I 서버용 MLCC와 FC-BGA 등 고부가 제품은 고객사 인증과 수율, 생산 기술 등이 중요한 만큼 단기간에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K-방산, 외형성장에도 대형 수주 고전 현지생산·기술협력 등 수출전략 분수령

수주환경 악화… 차별화 전략 중요해져

방위산업계가 실적 및 수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 대형 사업에서는 잇따라 고전하고 있다.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이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매출은 12조669억원, 영업이익은 1조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41.6%, 영업이익은 36.4% 증가했다. 수주잔고도 확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방산 부문의 수주잔고는 핀란드 K9 자주포와 에스토니아 천무 추가 공급 계약 등에 힘입어 약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K2 전자 수출과 철도 부문의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수주잔고 30조원을 넘어선 30조406억원을 기록했다.

실적과 수주잔고가 늘어난 것과 달리 해외 대형 사업의 수주 환경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뿐 아니라 현지 산업 기여도와 기술 협력, 정부 간 외교·안보 관계가 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스웨덴 사브에 밀려 탈락한 데 이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약 6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 레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백을 제안했지만 독일 라인메탈에 수주를 내줬다.

유럽연합(EU)이 방위비 확대와 함께 역내 생산과 공급망 참여를 강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무기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자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까지 요구하면서 기존의 완제품 수출 방식만으로는 유럽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공동개발과 후속 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남미와 미국으로 수출시장을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은 페루 국영 방산기업과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현지 조립·생산을 염두에 둔 후속 이행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AI도 FA-50 부품 생산라인 구축을 토대로 페루 차기 전투기 사업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계열 기술을 적용한 차륜형 자주포 K9MH를 앞세워 미 육군의 기동전술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엘라베마주에 통합·시험 시설을 구축하고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참여 비중을 높여 현지 조달 요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 “하반기 채무조정 수요 더 늘어날 수 있어”

〉1면 ‘상반기 개인회생…’서 계속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경우 자산 가치는 줄어든 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아 채무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도 가계의 상황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비와 주거비 등 필수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가구도 증가할 수 있다.

법조계는 증시 하락에 따른 투자 손실과 고금리 장기화가 맞물릴 경우 기존 취약자주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

로소득자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이자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 정상적인 채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돌려 막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다중채무자와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